

# 방탄소년단, 빌보드 장기집권 가능성 크다...“이유는?”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2위

3주 연속 13만 6000회 다운로드...‘클로저’ 이후 4년만

‘스포티파이(Spotify)’에서도 최상위권 유지...인기 입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장기집권에 돌입할 기세다.

14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오는 19일 자 ‘핫100’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해당 차트에서 지난 2주 연속 1위를 했다가 1단계 떨어졌다. 2위도 높은 순위다.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다이너마이트’의 ‘핫100’ 연착륙 가능성이다.

이 차트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3주차에 13만6000회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지난주 18만 다운로드보다 약 4만건이 줄었으나 빌보드 ‘톱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3주 연속 13만6000회 이상 다운로드된 곡은 2016년 9월~10월 미국 EDM 듀오 ‘체인스모커스’의 ‘클로저(Closer)’ 이후 약 4년 만이다.

‘다이너마이트’가 방탄소년단의 화제성에 기반한 ‘반짝 인기’의 곡이 아니라, 현지에서 즐

겨 듣고 있는 곡임이 증명 된 셈이다.

더 좋아해야 할 부분은 라디오다.

라디오를 통한 미국 내 곡 노출 빈도는 오히려 늘었다.

전주 대비 14% 늘어난 1830만명의 청취자에게 노출됐다.

특히 모든 장르의 라디오 방송 횟수를 다 합친 ‘라디오 송즈’에 49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 곡으로는 첫 차트 진입이다.

‘핫100’ 점수에서 라디오 방송횟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전역이 중요한 이유다. 국은 한국과 달리 지역신문이 강세다.

지역에서 공연을 해야 그 지역의 신문이 보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방송횟수로 이어진다.

현지 대중이 풀뿌리처럼 넓게 퍼져 있어야 해당 곡의 인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2년 싸이의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미국 팸밴드 ‘머문5’의 ‘월 모어 나이트’에 밀려 7주 연속 2위를 했을 때, 가장 뒤진 점수는 라디오 방송횟수였다.

심상치 않은 이번 ‘다이너마이트’의 라디오



방송횟수 점수는 이 곡의 풀뿌리 대중성을 증명한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 미국 대중이 평소 편하게 즐겨 듣는 디스코라는 장르도 현지인에게 덜 부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콘서트를 열지 못하자, 방탄소년단 팬들이 더 스트리밍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핫100’ 장기집권을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9일 자 차트부터 신설된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모두 2위를 차지했다.

두 차트는 닐슨뮤직 데이터가 기반이다.

200개 이상 지역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매긴다.

빌보드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 음원은 집계 기간 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곡이다.

특히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에서도 꾸준히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와 동시에 한국 가수 최초로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톱 5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2일~24일 자 차트에서 2위, 같은 달 25일~30일 자에서 3위, 이후 이달 13일까지 줄곧 4위를 지키고 있다.

스포티파이에서 방탄소년단의 강세는 K팝 전체에 낙수효과를 기대한다.

스포티파이는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다.

이르면 연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K팝이 이 플랫폼을 통해 세계에 스트리밍될 확률이 더 커진다.

이미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는 ‘하루 유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으로 ‘글로벌 톱 50’ 2위까지 차지했다.

2008년 스웨덴에서 처음 선보인 스포티파이는 ‘음원계의 넷플릭스’로 통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K팝의 스트리밍이 눈에 띄게 늘면서 한국시장 진출을 탐색해왔다.

이용자의 취향을 철저히 분석해 제시하는 음원추천 기능이 개인에게 맞춤맞춤이라는 평이다.

아이돌 제작사 관계자는 “음원 추천 기능이 활발하니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는 외국인에게 한국 아이돌 그룹 음원이 자연스럽게 추천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듣는 외국인도 늘어날 것”이라며 “동시에 ‘핫100’ 방탄소년단이 머무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현지 풀뿌리에서 K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활약은 K팝 전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매매 알선 혐의 가수 승리, ‘주요 혐의 모두 부인’

“성접대 동기 없다...유인석이 단독으로 한 일”

해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16일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상직전사범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이날 오전 10시 승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승리 측은 해의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유리홀딩스를 공동 운영했던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넘겼다.

유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같은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승리 측은 “성접대를 할 동기 자체가 없고, 유씨의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적 없다”며 “여성을 요청하거나 대금 지급 등에 피고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유씨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흥풍인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해당 남성이 누구지 짐작할 수 없

다. 누군지 짐작도 못 하는 사람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할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승리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유씨가 보낸 해당 여성을 단순히 자신과 만나보고 싶어 하는 여성으로 생각했다”며 성매매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누군지 모르는데 성관계를 했다고 어떻게 가정하냐”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승리 측은 해외에서 도박을 한 건 맞지만, 도박 액수뿐 아니라 시간·횟수·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습성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라스베이거스에 1년에 1~2차례 방문했을 뿐이고, 방문 목적도 도박이 아니라 다른 일정 때문”이라며 “실제로 도박 횟수가 많지 않다”며 상습도박 혐의를 부인했다.

그 밖에 횡령 관련 혐의 관련해서도 승리 측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횡령할 동기가 없다”며 부인했다.

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직접 철저히 관리하지는 못했지만, 담당자로부터 시장 명령 뒤 조치해 영입했다고 보고 받았다. 이후로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무표정으로 있었던 승리는 조치된 부분을 직접 확인했다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안다. 저는 연예인 생활로 해외에 주로 있어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을 변론했다.

승리 측은 이처럼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또 연예인 정준영 등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여성의 사진을 보낸 혐의도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전송받은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보낸 것”이라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승리는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인 유인석과 공모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개인 돈으로 한화 22억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11억7000만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또 연예인 정준영 등 5명이 있는 카카오톱 단체채팅방에 나체로 업로드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 넷플릭스 영화 ‘큐티스’, 여아 성상품화 논란

넷플릭스 측 “큐티스, 아동 성상품화 반대하는 작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큐티스’(cuties)를 두고 미국에서 여자아이들을 성 상품화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큐티스’(cuties)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자 미국 정치권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프랑스 감독 마이무나 두쿠레가 연출한 이 영화는 11세의 세네갈 이민 소녀 ‘에이미’가 파리 교외 빈민가에 있는 엄격한 무슬림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이 소녀는또래 아이들의 댄스 그룹 ‘큐티스’에서 활동하면서 무슬림 가정의 보수적인 분위기에 반기를 든다.올해 초 선댄스 영화제에서 월드 시네마 감독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댄스와 농도 짙은 성적 대화를 하는 장면 등이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다.

급기야 미국 정치권이 가세했고, 테드 크루스 미국 상원의원(텍사스주)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넷플릭스에 상영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큐티스가 10세 미만 여아들의 보호

를 표방하고 성적취미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위험할 정도로, 무책임하게 어린 배우들을 성적 상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와 경영진, 큐티스 연출진이 아동 성 착취를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영화에 대한 반대운동은 수십만명의 넷플릭스 회원가입자들의 탈퇴를 불렀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올라온 넷플릭스 구독 취소 청원에는 현재 65만명이 서명했다.

넷플릭스는 정치권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성명을 통해 “큐티스는 어린 아동들의 성 상품화를 비판하는 작품”이라며 “어린 소녀들이 소셜 미디어와 현대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압박을 묘사한 우수작이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할 영화”고 밝혔다.

두쿠레 감독도 “소셜미디어에 법합하는 성적 이미지를 아이들이 모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면서 “아이들을 어른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영화를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아동 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발매 일정을 10월28일로 연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 발매를 기다리셨을 모든 분들의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지난해 11월23일과 24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 실황 영상은 당초 오는 24일 발매 예정이었다.

## 이동욱 “구미호던” 조보아 첫 인상? 화면보다 더 예뻐”

“조보아, 구미호랑 되게 잘 어울려 조금 설렜다”

‘구미호던’에 동반 출연하는 배우 이동욱과 조보아가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 밝혔다.

이동욱은 16일 공개된 매거진 ‘퍼스트룩’과의 인터뷰에서 조보아의 첫인상에 대해 “처음 봤을 때 화면보다 더 예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TV에서 보이는 이미지보다 자신의 주장을 훨씬 더 조리 있게 잘 이야기했다”며 “그런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함께 상의를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보아는 이동욱에 대해 “구미호랑 되게 잘 어울린다”며 “조금 설렜다. 그런 판타지

성 있는 캐릭터가 정말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 생각한다. 비현실적인 외모 덕분에 선배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잘 어울린다”고 전했다.

내달 7일에 첫방송되는 tvN 새 수목극 ‘구미호던’은 도시에 정착한 구미호와 그를 쫓는 프로듀서의 판타지 액션 로맨스 드라마다. 이동욱은 구미호 ‘이연’ 역으로, 조보아는 괴담 전문 프로그램 PD ‘남지아’ 캐릭터를 연기한다.

이동욱과 조보아의 화보, 인터뷰는 오는 17일 발행되는 퍼스트룩 204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아이유, ‘콘서트 DVD 발매 일정’ 연기

“코로나로 작업 늦어져”

가수 아이유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콘서트 DVD 발매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9월24일 발매 예정이었던 아이유 ‘2019 아이유 투어 러브, 포엠’ 인 서울 DVD / 블루레이가 최근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여파로 인해 해

의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발매 일정을 10월28일로 연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 발매를 기다리셨을 모든 분들의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지난해 11월23일과 24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 실황 영상은 당초 오는 24일 발매 예정이었다.